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 논문

이동수단(transportation) 이미지를
통한 자유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민 복 기

이동수단(transportation) 이미지를
통한 자유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김 성 복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민 복 기

인 준 서

민복기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본인의 2011년부터 2014년에 연구한 작품의 형성 배경과 표현 방법을 연구, 분석한 것으로 이동과 자유, 작품의 실제적 움직임과 소통, 재료로서 석재 사용의 특징에 중점을 두었다.

본인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자동차, 비행기, 배 등의 이미지 사용은 동시대 사회 속에 현대인이 느끼고 원하는 떠남의 자유를 대변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관계를 시작해 이후에는 친구, 이웃, 학교, 직장, 크게는 사회 국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구조 안에 속해 있는 현대인들은 그로 인한 다양한 압박을 겪고 구속을 느끼며 결국 이러한 구조를 벗어나는 자유를 상상하게 된다. 각자 처한 삶 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이상향을 향해 떠나는 것이다. 그 이상향-목적지는 각자 다 다르지만 떠나는 상상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게 된다. 현대인에게 자유란 궁극적으로 벗어나고 떠남에 있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벗어나고, 떠남의 상상을 '이동 = 자유'라 설정하고 그 매개체로 자동차, 배, 비행기, 로켓 등 다양한 실제 이동수단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으로 관람자가 상상하는 이동은 막연한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할 논문에서는 작품 형성의 배경으로서의 구체적인 '이동과 자유'의 관계와 표현 방법적 요소로서의 움직임, 그리고 이로 인한 관람자의 '참여와 소통'에 관하여 분석한 후 작품 재료이자 표현 수단인 석재 사용에 관하여 논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에 대한 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바탕인 이동과 자유의 관계, 이동수단 (transportation)의 궤적 이미지의 사용, 관람자의 참여와 움직임, 소통에 관하여 서술하고 표현재료인 다양한 돌의 사용과 기법, 운동 구조를 연구 분석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개괄적 정리 및 앞으로의 작업 진행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형성의 배경	3
1) 자유와 이동	3
2) 기억 속의 자유	5
2. 작품 표현 방법	6
1) 이동수단(transportation)과 궤적(trace)	6
2) 참여와 움직임 그리고 소통	8
3) 표현재료의 특징	9
3. 작품 분석	12
III. 결론	27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두둥실> 녹사암, 대리석, 오석, 베어링_830×550×600(mm)_2013…	12
【작품 2】 <부르릉> 화강석, 대리석, 적사암_950×500×340(mm)_2013…	15
【작품 3】 <슈웅~> 대리석, 오석, 녹사암, 베어링_310×195×720(mm)_2014…	17
【작품 4】 <초록별> 녹사암, 대리석, 오석, 베어링, 스테인레스스틸_ 700×700×230(mm)_2014…	20
【작품 5】 <행성> 대리석, 녹사암, 오석, 베어링, 스테인레스스틸_ 730×730×260(mm)_2014…	20
【작품 6】 <목성> 이집트사암, 대리석, 청석, 오석, 베어링, 스테인레스스틸_ 600×600×300(mm)_2014…	20
【작품 7】 <항해> 화강석, 대리석, 사암, 베어링, 스테인레스스틸_ 450×450×230(mm)_2014…	23
【작품 8】 <빨빨빨> 현무암, 대리석, 스프링, 베어링, 스테인레스스틸_ 730×200×200(mm)_2014…	25

I. 서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를 원한다. 수많은 생명체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 자유에 대해 정확하게 자각하고 또 추구하며 살아간다.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철학에서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외부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본성을 좇아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로 정리된다.¹⁾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렵거나 혹은 여러 대답이 가능한 이유는 관념어, 추상어인 자유가 형태와 모양을 갖지 않는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때문이다.²⁾

이러한 자유의 광범위한 의미에서 연구자가 집중하는 부분은 바로 ‘이동의 자유’이다. ‘이동의 자유’란 말 그대로 하나의 장소나 소속 등에 연연 않고 어디든지 떠나는 ‘이동, 떠남’ 그 자체에 중심을 두는 것이다. 본인의 모든 작품은 그런 이동의 장면과 작가적 상상의 결합이다. 그 이동의 장면에는 현시대의 이동수단(transportation)과 뒤 따르는 과장된 궤적의 이미지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한 장면의 묘사이자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작품으로 표현된 이동으로서의 자유에 대해 분석하여 현대인에게 있어 ‘이동/떠남’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관람자의 작품 참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은우근, 「이슈, 보비 샌즈와 함께 자유를 사색하다」, 리북, 2003년, p5

여에서 오는 움직임으로 인한 소통의 이해에 목적을 둔다. 이에 따르는 연구방법으로는 작품에 등장하는 이동수단과 그 흔적(trace)으로서 궤적 이미지의 역할을 규명하고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여 작품 속 움직임이 갖는 의미를 연구하였다. 또 표현재료인 석재의 사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작품형성의 배경

1) 자유와 이동

자유는 인간 삶의 필수 요소이다. 물론 인간 생활의 3대 요소로 의식주를 먼저 들 수 있겠지만 살아감, 즉 삶에 있어서는 자유가 가장 우선 되는 요소이다. 인간에게 자유는 그 존재로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고 그것이 없는 인간은 하나의 사물에 불과하다. 또 자유는 경험으로 인식되는 대상이 아니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주는 상징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분리할 수 없는 존재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자유는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되며 그 순간,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은 모든 현실은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된다.³⁾ 인간에게 있어 자유는 이렇듯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주제인데 이를 추상적인 정의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전적 의미의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서 억압의 전제가 되는 것은 ‘남의 구속’이나 ‘얽매이는 무엇’인데 본 연구자가 말하는 자유는 앞의 ‘남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이사야 벌린⁴⁾이 말하는 소극적 자유⁵⁾에 해당된다. 소극적 자유는 ‘무엇으로 부터

3) 문지영, 「자유」, 책세상, 2009년, p22

4)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 1909~)은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태어났다. 여섯 살 때 러시아로 이주하여 1917년에는 페트로그라드에서 사회민주당의 혁명과 볼셰비키의 혁명 등을 목격하였다. 가족이 영국으로 이주한 1921년 이후 그는 세인트 폴스 스쿨과 옥스퍼드의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았다. 옥스퍼드에서 그는 울슬즈 칼리지와 뉴 칼리지의 펠로, 사회정치이론 교수, 울프슨 칼리지

의 자유'라 표현 되는데 이는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럼 현대인에게는 자유란 어떤 의미일까. 우선 여기서 연구자가 말하는 현대인이란 간단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다. 현대인에게 있어 자유란 역시 인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주어진 상황, 관계 등 구속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 속 현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구자는 현대인들의 여행이나 떠남 등 '이동'을 그들에게서 보여 지는 '자유'의 모습'이라고 보았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자유'인 것이다. 2008년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주5일 근무 이후 주말 여가활동' 설문조사⁶⁾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원하는지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현대인을 설문 안의 직장인으로 한정하고, '여행 및 레저 문화활동'을 '이동-자유'의 모습'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막연할 수 있는 현대인의 자유를 구체적 수치로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로서 참고 할 수 있겠다. 현대인의 자유에 한 형태로써 나타나는 여행, 즉 '이동'의 모습은 연구자가 작품에서 표현하는 자유이다.

의 초대 학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또한 영국 학술원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사상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에라스무스 상, 리핀코트 상, 아벨리 상 등을 수상하였고, 일생 동안 시민의 자유를 옹호한 공로로 예루살렘 상을 받기도 했다. 1997년에 사망하였다. - 이사야 벌린 (해외저자사전, 2014. 5, 교보문고)

- 5) 영국의 사상가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이 옥스포드대학 치체리 강좌의 취임강의 '2가지 자유개념'(1958)에서 제출한 구분.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란 <어떤 주체가 타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가능한 것을 하거나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방임되는 범위는 어떠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끌어 '타인에 의한 간섭의 부재'라는 소극적인 기준에 의해 자유를 파악하는 것이다. 중략 - 소극적 자유/적극적 자유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 6)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10명중 4명은 '여행 및 레저 문화생활'로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경력포털 스카우트(www.scout.co.kr)는 직장인 948명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 이후 주말 여가활동'에 대해 묻은 결과, '여행 및 레저 문화활동'이 40.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휴식 및 TV시청'(32.3%), '독서 및 자기개발'(13.1%), '투잡 및 주말 아르바이트'(3.4%), '기타'(10.3%) 등의 순이었다. 중략 - 직장인 대상 여가설문조사 결과 (취업 경력포털 스카우트 2008)

2) 기억 속의 자유

작품 속 이동의 모습은 본인의 경험과 상상을 바탕으로 한다. 어릴 적 큰 수술로 긴 병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본인이 느꼈던 가장 큰 시련은 수술 후 오는 후유증이나 통증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는 자유의 박탈이었다. 두 다리는 멀쩡했지만 건물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고 잠시 주변 산책 정도를 제외하곤 외출은 허락되지 않았다. 길고 지루한 병원 생활 속 유일한 낙은 창 밖 도로 위 수많은 자동차 바라보기 이었는데 그 많은 자동차들이 어디를 향하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는 없지만 ‘나도 저들처럼 떠나고 싶다’라는 상상을 하였다. 퇴원 후에는 자유로워 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해진 시간 먹어야 하는 약과 처치로 인해 병원 생활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학교생활 중 가장 활동적이어야 하는 체육시간에는 다른 친구들과의 신체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했다. 예를 들어 농구 경기 중 간단한 몸싸움 정도도 본인에게는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면 주로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맑은 날에는 근방의 공항 탓에 비행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지나가는 비행기와 그 뒤에서 막 생성되고 있는 비행운을 바라보며 병원에서도 같은 자유로이 떠나는 상상을 하고는 하였다.

이러한 유년시절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지금도 어디론가 떠나는 자동차, 하늘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비행기를 바라보면 무한한 자유의 상상과 웬지 모를 편안함도 느낀다. 작품 속에서 이 같은 감정들은 여러 이동수단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장면을 이루며 과장되게 표현된다.

2. 작품 표현 방법

1) 이동수단(transportation)과 궤적(trace)

작품에는 여러 이동수단의 이미지가 사용된다. 자동차, 배, 비행기 등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미지부터 로켓이나 우주선 같이 현존하지만 실제 접하기는 어려운 이미지까지 다양하다. 이런 이미지 선택의 핵심은 실존에 있다. 관람자는 작품을 보며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런 이미지들이 관람자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미지라면 이는 관람자의 작품 이해나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실제 상상 가능한, 익숙한 이미지의 사용으로 관람자가 작품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연구 작품의 주된 특징은 각 이동수단의 배출 연기를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된 배출가스를 남기기 마련인데 작품 속 배출 가스는 실제 오염물로서의 가스가 아니라 각 이동수단의 흔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이동의 흔적을 궤적(軌迹)⁷⁾이라 하며 항공학용어로는 비행운(飛行雲)⁸⁾이라 한다.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7】, 【작품 8】에 사용된 궤적이미지를 살펴보면 흐름이 존재한다. 이 흐름은 【작품 1】, 【작품 2】, 【작품 3】에서처럼 연속적으로 길게 이어져 있거나 【작품 7】, 【작품 8】에서

7) 1.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이라는 뜻으로, 물체가 움직이면서 남긴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자국이나 자취를 이르는 말.
2. 어떠한 일을 이루어 온 과정이나 흔적.
3. <수학> [같은 말] 자취1(2. 어떤 일정한 성질을 가진 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도형).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8) 항공기가 고도에서 차가운 공기 속을 통과할 때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서 수증기의 응축으로 인하여 발생, 형성되는 긴 꼬리 모양의 가시적 습기. [飛行雲, contrail] (항공우주공학용어사전, 2012.9.20, 새녘출판사)

처럼 끊어져 있기도 하다. 【작품 1】 , 【작품 2】 , 【작품 3】 에서 궤적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며 공간을 구성한다. 【작품 1】 에서 궤적의 밑바닥은 오뚝이와 같이 둥그렇게 되어져 있다. 위에서 보면 비행기 바로 뒤부터 반대편 부분까지 한줄기 흐름이 있다. 이는 마치 비행기가 구불구불 날아간 듯한 형상이다. 【작품 2】 에서도 역시 달리고 있는 버스의 뒤를 따라 궤적이 형성되는데 이는 다소 과장된 덩어리를 이루며 길 위에 남겨진다. 【작품 3】 의 궤적은 솟아오르는 로켓의 흔적으로 로켓의 경로에 따라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연속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 【작품 7】 , 【작품 8】 속의 궤적은 앞의 그것의 형상과는 달리 각각의 작은 덩어리를 이루며 생성된다. 【작품 7】 에서는 배에서, 【작품 8】 에서는 자동차를 따라 형성된다. 이처럼 이어져 있기도, 끊어져 있기도 한 이 같은 흐름들은 가상의 시간동안 로켓, 비행기, 자동차, 배등의 궤적의 주체가 이동해온 경로 혹은 과정을 조각 속에서 보여주며 동시에 공간을 구성한다.

이 같이 시간과 공간을 보여주는 궤적 이미지의 사용은 【작품 4】 , 【작품 5】 , 【작품 6】 속에서는 생략되기도 하였다. 반구의 행성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이동수단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이 시리즈의 작품들은 장소성을 강조하는 행성이 주요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이 작품들에서는 이동수단 이미지들의 실제 움직임이 궤적을 대신해 작품 속 시간과 공간을 구성한다. 행성을 중심으로 이 이동수단들이 회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실제 이동인 동시에 시간을 이루고 그 자체로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2) 참여와 움직임 그리고 소통

키네틱 아트⁹⁾ 작품에서 작품이 움직이기 위한 힘을 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모빌(mobile)’의 창시자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Stirling Calder)¹⁰⁾와 현재 최고의 키네틱 아티스트로 추대 받고 있는 테오 얀센(Theo Jansen)은 자연으로부터 동력을 얻는 대표적인 작가이다. 칼더는 기류에서 그 동력을 얻는다. 얇은 철판으로 구성된 작품은 공기의 작은 흐름에도 영향을 받고 또 서로 영향을 주며 움직이게 된다. 테오 얀센 역시 같은 기류로 부터의 동력이지만 명확히 말하면 바람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나무와 비닐, 종이 등으로 만들어진 그의 작품은 뜻이 달린 거대한 엔진과 같은데 그 뜻은 바람을 맞으며 동력을 전달하여 작품이 움직일 수 있게 한다. 테오 얀센은 본인 스스로 그의 작품을 하나의 생물로 여기는데 작품의 실제 움직임 역시 생명체와 매우 흡사하다. 최우람의 작품도 테오 얀센의 작품처럼 미지의 생명체와 같이 보인다. 하지만 모터로부터 동력을 얻고 프로그래밍 된 컴퓨터에 의해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작품은 마치 공학자의 복잡하고 차가운 기계처럼 보이지만 움직임은 부드럽고 수려하다.

본 연구자는 본인 작품의 동력원을 관람자로부터 찾았다. 관람자가 직접 만지고 힘을 주어야 작품이 움직이고 관람자는 움직이는 작품을 다시

9) 움직이는 예술.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움직임(動)을 나타내는 작품의 총칭. 칼더의 <모빌> 처럼 바람이나 손으로 운동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보, 마르셀 뒤샹에서 비롯되고 2차대전 후의 텅겔리 등의 모터 장치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포함됨. 1961년에 스톡홀름 근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운동과 예술> 전람회가 최초의 대규모 국제전으로서, 여기서는 비킹 에겔링(Viking Eggeling, 1880~1925)의 <절대영화>로부터 무나리의 작품까지 모아져 20세기 키네틱아트의 전모가 소개되었음. 물체의 운동 뿐아니라 아감이나 소토 등에 대한 움직이는 영상이나 빛의 변화 등을 나타내는 작품도 포함됨. 1960년대에 개화한 현저한 동향의 하나로서 컴퓨터에 의한 작품도 키네틱 아트와 관련되고 있음. 키네틱 아트 [Kinetic Art]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소)

10) 미국의 조각가로 움직이는 미술인 '키네틱 아트(Kinetic Art)'의 선구자이다. "문드리아의 작품을 움직이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조각(mobile)'을 제작함으로써 조각을 대좌(臺座)와 양감에서 해방시켰다. - 알렉산더 칼더 [Alexander Stirling Calder] (두산백과)

한 번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은 이 참여의 과정을 관람자 대 작가/작품 간의 이해 간극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보았다. 관람자와 작품의 접촉은 서로간의 이해의 연결고리가 되고 관람자는 작품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밑바닥이 오뚝이처럼 둥글게 조각된 【작품 1】은 관람자가 만지게 되면 전후좌우로 흔들거리고 비행기의 프로펠러도 돌려 볼 수 있다. 자유롭게 만지고 흔들어 보면서 관람자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다. 【작품 4】, 【작품 5】, 【작품 6】은 벽에 걸려 있는데 중심 행성부분을 제외한 주변의 자동차, 배, 로켓을 회전해 볼 수 있다. 관람자가 전달하는 힘에 따라 회전 속도는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이동수단의 잔상도 달라진다. 벽에 설치되는 【작품 7】과 좌대 위의 【작품 8】은 설치 위치는 다르지만 관람자가 만지는 방법은 비슷한데 배, 자동차부터 시작하여 뒤에 이어지는 궤적을 손으로 훑는 것이다. 관람자의 손길을 따라 차례로 움직이거나 회전을 하게 되고 또 순차적으로 멈추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참여의 과정은 강요되지 않으며 단지 소통의 장을 여는 것 일뿐이다. 소통의 결과로 관람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은 꼭 본인의 의도와는 같을 수는 없다. 관람자가 만져보고 움직이는 순간 작품은 생명력을 얻고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움직임이 멈추면 작품은 다시 처음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일 뿐이다.

3) 표현재료의 특징

인간에게 석재는 자연 속에서 단순히 존재만으로 의미를 갖는 돌과 달리 사용에 따라 많은 가치를 갖게 된다. 원시 인간의 다양한 도구부터 시작해 현대의 다양한 건축 재료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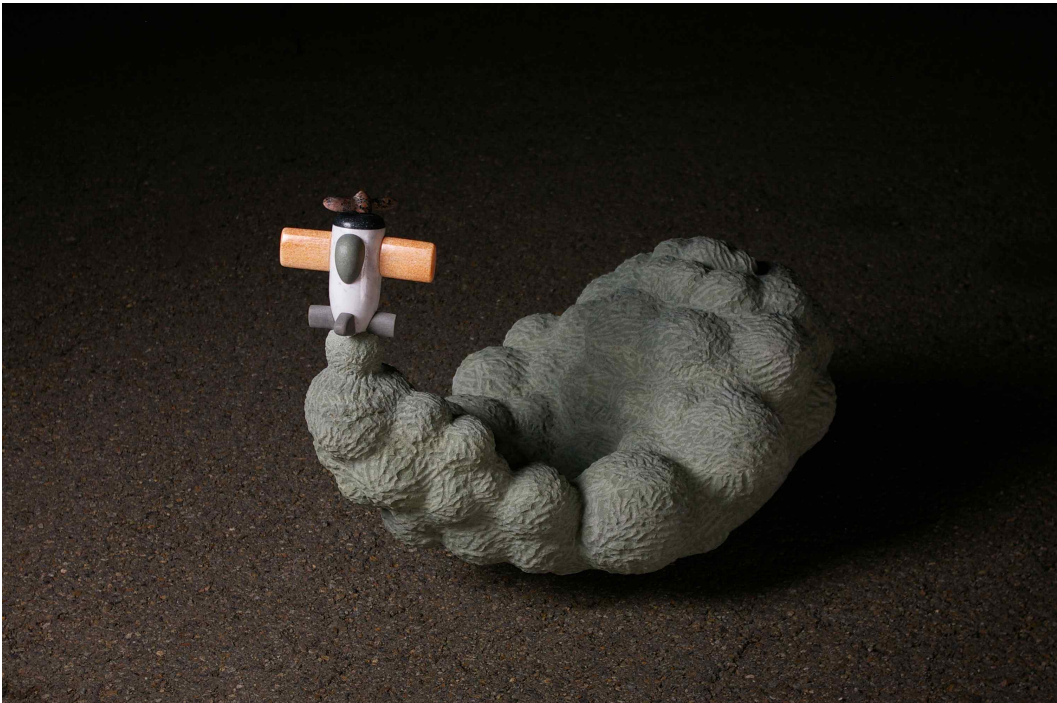
가에게 있어 역시 석재는 오랜 시간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조각의 재료로써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

전통 석재의 사용에 있어 온전한 한 덩어리를 조각하는 것이 아닌 여러 조각을 붙이거나 깨트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규칙을 어기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여겨졌다. 연구자에게 석조각은 이러한 전통성 보다는 석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성이나 색깔 등이 더 관심 있게 다가왔고 이런 여러 석재 사용의 조합에서 오는 다양성이 작업에 있어서의 또 다른 만족감으로 다가왔다. 그런 연유로 연구자는 본인의 작품에서 단순 조각보다는 여러 조각을 붙이고 조립한 후 조각을 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작품 2】의 버스를 예로 살펴보면 모두 5종류의 석재가 사용되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현대리석은 버스의 몸체로 쓰이고 검은 대리석으로 바퀴를 만들어 이어 붙인다. 창문 부분은 분홍대리석으로 만들고 헤드라이트 부분은 이집트 사암을 사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천정부분은 붉은사암으로 만들어졌다. 각 부분은 크기에 맞게 따로 조각된 후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조립된다. 각 조각이 닿는 면은 정확한 수평을 이뤄야만 조각 후에 가장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스테인레스 스틸은 철과 달리 탄성이 있고 쉽게 녹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거나 거의 보이지 않게 스테인레스 스틸이 사용 되었는데 주로 돌과 돌 사이를 이어 주거나 회전축의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회전축의 중심으로 사용 될 때는 베어링이 함께 사용되었다. 베어링의 사용은 사용되지 않을 때 보다 훨씬 부드러운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데 【작품 3】에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 로켓의 몸체 속에는 작은 두 개의 베어링과 그것을 중심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봉이 있어 원활한 회전을 하게한다. 관람자의 작은 손길에도 부드러운 회전을 하여 작품 감상에 도움을 준다. 【작품 4】 , 【작품 5】 , 【작품 6】의 스테인

레스 스틸과 베어링의 사용은 기능상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지만
결으로는 거의 확인할 수 없다. 【작품 4】 , 【작품 5】 , 【작품 6】 의 각
행성 뒤에는 행성과 연결된 행성 크기의 스테인레스 스틸 원판이 있고
그 원판으로 인해 행성은 벽에 고정된다. 또 원판과 행성 사이에 베어링
이 고정되어 행성 주변으로 각각의 이동수단들이 회전할 수 있게 도와준
다.

3. 작품 분석



【작품1】 두둥실

【작품1】 두둥실

제작년도 : 2013년

작품크기 : 830×550×600(mm)

작품재료 : 사암, 대리석, 오석, 볼베어링

제작방법

- 1) 유토를 이용하여 먼저 모형을 제작하고 석고를 이용하여 캐스팅을 한다. 이 작품의 형태 컨셉은 오뚝이처럼 움푹이는데 있으므로 모형 또한 전체적인 균형과 중심에 유의한다.
- 2) 제작된 모형을 바탕으로 녹사암을 이용하여 비행운을 확대 조각한다.
- 3) 조각된 비행운 표면을 에어툴을 사용하여 거칠게 정리한다.
- 4) 다양한 색의 조각들을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여 비행기 모양을 만들고 표면을 연마하여 광을 낸다.
- 5) 프로펠러를 따로 조각하고 조립 후 회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심을 잘 맞추어 베어링이 들어갈 구멍을 뚫는다. 구멍에 베어링을 끼워 고정시키고 비행기 몸체와 결합시킨다.
- 6) 완성된 각각의 비행기와 비행운을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접착한다.
- 7) 마지막으로 평평한 바닥 위에 놓아보고 전체적인 균형과 중심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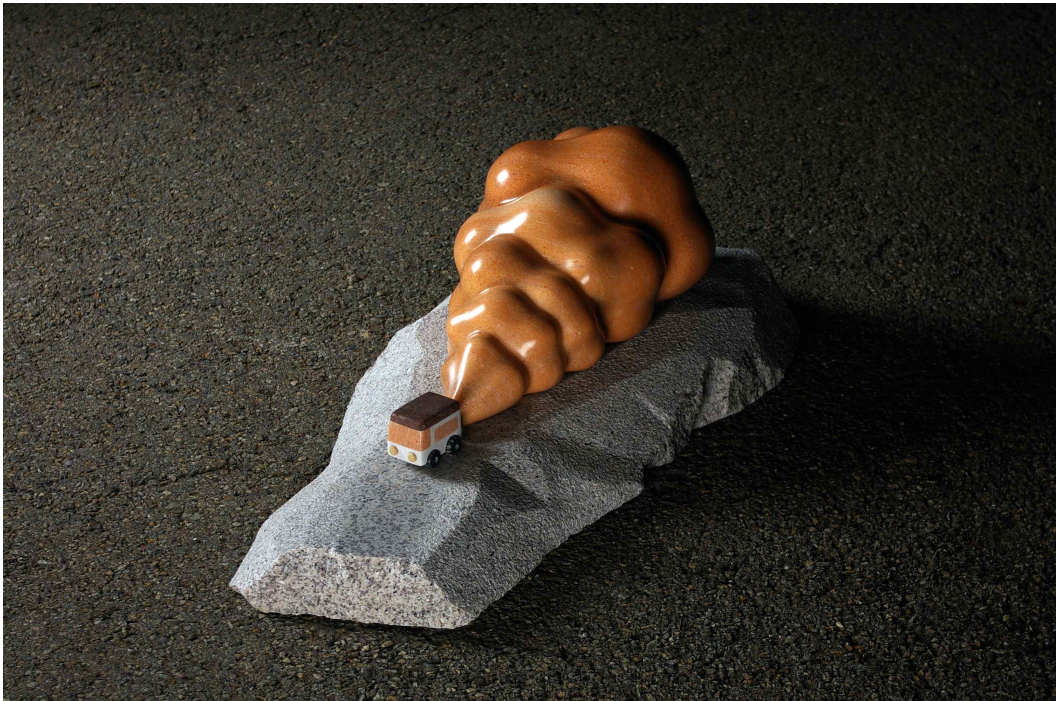
작품 설명

창공을 향해 급상승하는 비행기 뒤에는 엔진에서 발생한 높은 열의 연소가스와 차가운 수증기가 결합한 비행운이 따르기 마련이다. 【작품1】은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가는 그런 비행기와 비행운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어렸을 적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다. 맑은 날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근방의 공항 탓에 비행운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운이 좋은 날에는 지나가는 비행기와 그 뒤에서 막 생성되고 있는 비행운을 동시에 볼 수도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저 비행기는 어디로 갈까?’, ‘나도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다’라는 상상을 하고는 하였다.

하늘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비행기의 모습에서 무한한 자유와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서 오는 편안함, 포근함을 느낀다. 비행운은 비행기의 이동 경로와 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본인이 작품 속에서 자유를 향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작품1】의 밑바닥은 등글게 조각되어져 있다. 힘을 가하면 마치 오뎅이처럼 기우뚱 거리거나 중심을 축으로 하여 돌게 된다. 비행기의 프로펠러도 따로 조각 후 베어링으로 결합되어 관람자가 돌려 볼 수 있게 되어있다. 직접 만져보고 움직여봄으로서 작품에 동력을 제공하고 이로서 작품은 생명력을 얻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은 관람자가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작품 2】 부르릉

【작품 2】 부르릉

제작년도 : 2013년

작품크기 : 950×500×340(mm)

작품재료 : 화강석, 대리석, 적사암

제작방법

- 1) 유토를 사용하여 버스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형상을 만들고 석고를 이용하여 캐스팅한다.
- 2) 분홍대리석을 앞의 석고 모형 비율에 맞게 조각한다. 이때 밑 부분을 둥글고 긴 원기둥 모양으로 조각하여 완성 시 중심을 벗어나지 않은 채 좌우로 잘 움직일 수 있게 한다. 표면은 고르게 연마하여 광을 낸다.
- 3) 화강석을 이용하여 자동차가 지나갈 길을 만든다. 좌우부분은 거칠고 불규칙하게 조각하고 에어틀로 정리하고 중심은 곱게 연마하여 버스가 지나가는 길을 표현한다.
- 4) 다양한 대리석, 사암을 사용하여 시골길을 달려가는 버스를 만든다.
- 5) 만들어진 길과 버스, 연기를 하나로 조립한다. 화강석 길 앞부분에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버스를 부착하고 그 뒤에 연기를 배치시킨다. 이때 연기 아랫부분에 닿는 화강석 길을 둥글고 긴 원기둥 모양으로 홈을 파 연기가 좌우로 움직일 때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 6)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균형과 움직임을 확인하며 마무리한다.

작품 설명

70, 80년대 외국 영화의 마지막 한 장면처럼, 수평선을 향해 달려가는 자동차의 모습에서 자유로움과 평온함을 느낀다. 비포장 도로 위를 덜컹덜컹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버스의 모습. 뽀얗게 일어나 흙먼지는 지는 노을빛에 붉게 빛나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저 떠남만이 있다.

【작품 2】 부르릉은 그런 장면을 상상하며 제작하였다. 화강석으로 기다란 길을 표현하였고 그 길 위를 달리는 버스는 작고 아담하게 색색의 돌을 붙여 만들었다. 버스 뒤로 따라오는 연기는 크게 확대되어 과장되게 조각하였는데 이로 버스의 여정을 표현하였다. 과장된 연기는 관람자의 손길에 따라 마치 흔들바위처럼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있는데 이 움직임으로서 연기는 지금 막 피어나는 것 같은 생동감을 주게 되고 관람자로 하여금 참여라는 감상의 재미를 누리게 된다.



【작품 3】 슈웅~

【작품 3】 슈웅~

제작년도 : 2014년

작품크기 : 310×195×720(mm)

작품재료 : 대리석, 오석, 사암, 베어링

제작방법

- 1) 우선 대리석 위에 대략적인 형태의 비행운 형상을 스케치한다.
- 2) 전체적인 위치와 형태를 고려하여 로켓과 바닥에 꽂아질 부분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는다. 닿는 면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완성 후 뚫으면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3) 구멍의 위치를 확인해 가면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조각한 후 에어툴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 4) 색색의 다양한 대리석, 사암을 사용하여 날아 올라가는 로켓을 만들고 광을 내어 정리한다. 중심에 구멍을 뚫고 회전축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베어링을 꼽는다. 회전축이 중심에서 어긋나면 균형 있게 회전하지 못 함으로 주의한다.
- 5) 좌대로 사용할 오석을 조각 후 연마하여 광을 내고 비행운이 꼽혀 세워질 스테인레스 심봉을 고정시켜 놓는다.
- 6) 준비된 좌대 위에 조각된 비행운을 에폭시를 사용하여 접착시키고 비행운 끝 부분에 로켓을 꽂는다.
- 7) 로켓의 회전을 확인하며 마무리 한다.

작품 설명

카운트다운이 끝남과 동시에 발사되는 로켓에서는 폭발로 인한 엄청난 연기와 수증기가 동시에 뿜어져 나온다. 이 연기와 수증기는 하나의 비행운을 이루며 발사되는 로켓의 뒤를 따라 궤적이 된다. 비행운이 만드는 궤적은 순간 빠르게 솟아올라가는 로켓의 공간 이동과 시간을 보여준다. 생성과 동시에 확장되다 서서히 사라지는 비행운을 조각하여 연속적인 시간을 하나의 장면으로 이루게 한다.

【작품 3】은 보통의 과학 속 연구탐사를 위한 발사가 아닌 마치 만화 속 여행과 같은 장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날아가고 있는 로켓은 아이의 그림처럼 단순화 하였고 비행운 역시 사실적 묘사보다 둥근 양감과 궤적의 표현에 중점

을 두었다. 비행은 표면도 광을 내지 않고 부드럽게 두드려 뿌옇게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앞의 로켓에는 회전으로 움직임 요소를 첨가하였는데 이는 관람자가 직접 돌려볼 수 있게 하였다.



【작품 4】 초록별



【작품 5】 목성



【작품 6】 행성

【작품 4】 초록별

제작년도 : 2014년

작품크기 : 700×700×200(mm)

작품재료 : 사암, 오석, 대리석, 베어링, 스테인레스스틸

【작품 5】 목성

제작년도 : 2014년

작품크기 : 600×600×250(mm)

작품재료 : 사암, 오석, 화강석, 베어링, 스테인레스스틸

【작품 6】 행성

제작년도 : 2014년

작품크기 : 750×750×230(mm)

작품재료 : 대리석, 오석, 사암, 베어링, 스테인레스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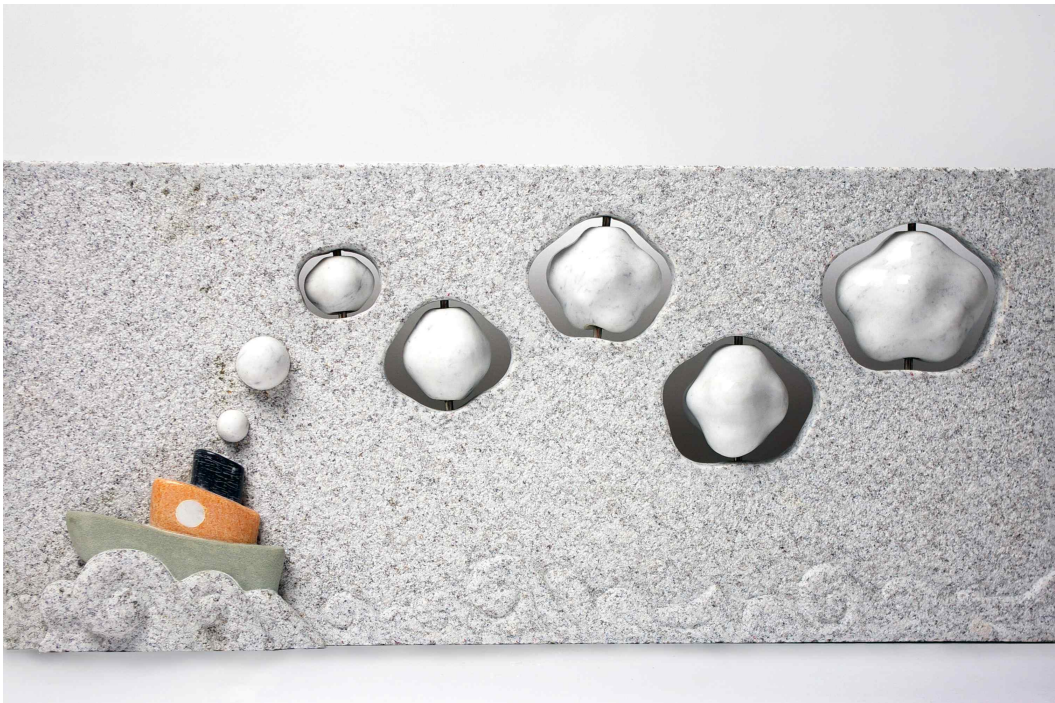
제작방법

- 1) 각각의 돌을 반구 형태로 깎고 벽에 설치할 것을 고려하여 뒤쪽을 일정한 두께로 파내어 무게를 최대한 줄인다.
- 2) 작품마다의 특징에 맞게 에어틀로 두드리거나 연마하여 광을 내고, 뒤쪽에는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작품의 중심에 맞게 석재용 에폭시접착제로 고정시킨다.
- 3) 각 행성에 맞는 심볼을 각종 돌을 붙여 조각하고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중심으로 무게를 고려하여 무게중심이 맞도록 스테인레스 환봉의 길이를 조절, 배치시킨다.
- 4) 길이조절된 환봉을 중심 베어링에 용접하고 각 심볼을 에폭시를 사용하여 부착시킨다.
- 5) 스테인레스 원판에 꽃아질 파이프를 따로 용접하고 나사못을 사용하여 벽에 고정시킨다.
- 6) 고정된 스테인레스판 파이프에 베어링을 꽃아 각 심볼의 무게 중심과 회전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 위에 각 행성을 꽃아 마무리 한다.

작품 설명

【작품 4】, 【작품 5】, 【작품 6】은 행성과 각행성을 중심으로 주변을 회전하는 이동수단을 실제 회전을 통해 나타낸 작품이다. 배, 로켓, 자동차의 이미지는 각각 어울리는 행성과 짝을 이뤄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 다른 작품과 달리 궤적의 이미지는 제외되었다. 각 행성은 비행운처럼 작품 속에서 형태적으로 중심에 위치한다. 이전 작품들에서 비행운이 이동의 시간과 과정을 보여준 것에 비해 이 시리즈에서는 이동수단의 모습과 그 장소가 부각되었다.

이 작품들 속 움직임 역시 관람자로 얻어진다. 이동수단을 돌리게 되면 각 행성을 중심으로 회전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각 행성을 이동하며 거니는 듯한 장면을 만들어 낸다. 또 관람자는 직접 회전을 빠르게, 느리게도 만들어 내며 직접적인 참여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작품 7】 항해

【작품 7】 항해

제작년도 : 2014년

작품크기 : 800×400×130(mm)

작품재료 : 화강석, 대리석, 사암, 베어링, 스테인레스스틸

제작방법

- 1) 화강석판에 항해 중인 배와 파도, 연기의 형태를 스케치 한다.
- 2) 스케치에 맞게 연기의 위치를 잡고 코아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는다. 파도 형상은 저부조의 형태로 얇게 조각한다. 이때 충격으로 인한 판의 깨짐에 유의한다.
- 3) 각 구멍의 크기에 맞는 대리석을 연기의 형태로 조각하고 회전에 문제가 없도록 중심을 고려하여 베어링을 설치한다.
- 4) 준비된 연기를 화강석 판 뒤에서 홈을 파 에폭시 접착제로 고정시키고 회전할 때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 5) 항해 중인 배의 형태를 색색의 돌을 붙여 조각한다. 이때 고부조의 형식으로 제작하여 저부조로 조각된 파도와 차이를 두어 작품에서 배가 더 부각될 수 있게 한다.
- 6) 화강석 판 뒤쪽에 벽에 걸릴 수 있는 걸쇠를 고정시키고 작품을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지구라는 제한된 공간 속이지만 인간이 느끼는 바다는 거의 무한과 같다. 육지의 끝에 서서 하늘과 바다가 이루는 수평선을 바라보면 끝이 있는 듯 보이지만 배를 타고 조금이라도 나아가다 보면 그것은 점점 더 멀어져 무한처럼 느껴진다.

【작품 7】 속 심상은 【작품 2】의 자동차와 같다.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의 모습에서 자유를 느낀다. 항해하는 배의 위 하늘에는 뭉게뭉게 구름이 솟아나고 그 구름은 그 배를 따라오며 하나의 궤적을 이룬다.



【작품 8】 별별별

【작품 8】 빨빨빨

제작년도 : 2014년

작품크기 : 730×200×200(mm)

작품재료 : 현무암, 대리석, 스프링, 베어링, 스테인레스스틸

제작방법

- 1) 자연 현무암 바닥을 평평하게 깎아 안정되게 만든다.
- 2) 대리석 조각 밑에 베어링이 들어갈 구멍을 미리 뚫고 회전 시 중심이 나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구름모양으로 조각한다.
- 3) 색색의 돌을 이어 붙여 달러가는 자동차를 만들고 광을 내어놓는다.
- 4) 준비된 현무암 위에 자동차와 각 구름의 위치를 배치시켜 보고 위치를 표시한 후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다.
- 5) 자동차에는 움직일 수 있는 스프링을, 구름에는 회전할 수 있는 베어링을 각각의 구멍에 맞추어 넣는다.
- 6)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완벽히 접착한 후 스프링의 반동과 구름의 회전을 확인한다.

작품설명

【작품 8】은 【작품 2】처럼 한적한 시골길을 달러가는 자동차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하지만 【작품 2】와 달리 회화와 같은 측면성이 강조되고 오르락내리락 달러가는 자동차와 그 뒤를 따르는 연기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때문에 관람자는 작품의 앞부터 손으로 쓸어 지나가듯이 만질 수 있다. 손의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자동차와 회전하는 구름은 실제 달리는 차 속에서 창밖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스치는 바람의 촉감과 같이 자연스럽게 스쳐 흘러감을 느낄 수 있다.

Ⅲ. 결 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자유에 대한 갈망은 벗어남과 떠남과 같은 이동에 대한 상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상은 작품에서 실제 이동수단 형상과 만나 막연함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진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본인이 작품에서 나타내는 자유에 대한 개인적 근거와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또 자유와 이동이 가지는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봄으로 작품형성의 배경을 밝혔다. 개인적 연유로 출발한 자유에 대한 물음이 현대인에게 있어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게 되었고 본인 작업에 대해 뚜렷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자유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설명되기에는 너무나 광대하고 또 본인의 논제가 이를 아우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표현 이미지 역시 한정되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는 한계도 발견하였다.

이번 논문은 준비하며 느낀 한계를 통해 지금까지의 작업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였고 작업에 있어 본인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현대인들의 이동의 자유가 아닌 그들이 겪는 근원적인 구속 현상들과 내면에 주목하는 작업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은우근, 「이슈, 보비 센즈와 함께 자유를 사색하다」, 리북, 2003년
- 박홍규, 「자유란 무엇인가, 공존을 위한 ‘상관 자유’를 찾아서」, 문학동네, 2014년
- 문지영, 「자유」, 책세상, 2009년

《사전》

- 「해외저자사전」, 교보문고, 2014년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아카데미아리서치, 2002년
- 이태규 「항공우주공학용어사전」, 새녘출판사, 2012년
- 「미술대사전(용어편)」, 한국사전연구소, 2004년

《홈페이지》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설문》

- 「직장인 대상 여가설문조사 결과」, 취업 경력포털 스카우트, 2008년

ABSTRACT

Expression of freedom studies through transportation image

-around my works-

MIN, Bok-ki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inspiration and expressive techniques of my sculptural artworks created in between 2011 and 2014, during my Master's degree program and graduate exhibition.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freedom of departure, the interaction between audience and moving sculpture, and the merit of using stone as the sculpting material.

The contemporary desire for the freedom of departure is portrayed through the overarching theme of transportation, largely based on my personal experience with automobiles, flights, and vessels. Contemporary human beings live in the complex network of relationships, that span across friendship, neighborhood, school, workplace, or even society and nation. This complexity of relationship oppresses and confines the contemporaries, eventually forcing people to desire and imagine the freedom to escape the confinement of relationships. Such imagination is an escape from the adversities of complex, contemporary life towards a perfect utopia. Perception of utopia may differ from person to person, but regardless, this simple

act of imagining the escape can provide satisfaction and contentment. To the contemporaries, freedom is ultimately rooted in this notion of escape and departure from complexities.

The depiction of means of transportation such as automobiles, vessels, flights, and rockets in my artworks aims to portray this idea of "Departure = Freedom." By physically depicting the symbols of departure and escape, audiences are able to materialize the vague notion of freedom into something substantial and clear.

This paper will further analyze inspiration of sculptural artworks based on the connection between freedom and departure, moving sculpture as method of expression, and the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that moving sculptures bring to the audience. Finally, this paper will discuss the significance of stone as the sculpting material.

This thesis is organized as following:

The first chapter, the introduction, provides the context, inspiration, research objective, and methodology.

The second chapter discusses the connection between freedom and departure, symbolism behind the trace of transportation, audience's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around the moving artwork, and stone sculpting techniques for the moving sculpture.

The third chapter provides a summary and introduces a direction of progress for future works.